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각장애인 관객을 위한 프로그램북 한글파일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ck.or.kr/ko/content/board/notice/48642/form>

프로그램북 한글파일은 인쇄용 프로그램북 내에 삽입된 이미지에 대한 설명과 원고가 텍스트로 담겨있습니다.

※ 프로그램북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본 공연
창작공감: 연출

커뮤니티 대소동



국립극단

* 이 공연은 2021년 (재)국립극단의 [창작공감: 연출] 공모를 통해 선정, 개발되었으며
2021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소극장 판에서 창작과정을 공유하였습니다.



※ QR코드를 통해 프로그램북 한글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창작공감: 연출] 작품개발단계 연혁

YY	MM	DD	
2021	01-03		공모 및 연출가 선정
	04	01	오리엔테이션
	04-07		정기/수시 모임, 리서치
	05	12	강연: 코다(CODA)에 대하여, 이현화
	06	24	공동체상영: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조한진희
	07	14	관계자 대상 - 리서치 발표회
	07-11		워크숍 및 연습
	08	29	특강: 다큐멘터리 연극, 전강희
	09	03	특강: 장애인 예술 창작 활동, 김원영
	11-12		창작과정공유 @ 국립극단 소극장 판
12		의견수렴과정	
2022	01-04		본 공연 연습
	03-05		본 공연 @ 국립극단 소극장 판

국립극단 커뮤니티 대소동
연출 이진엽
작 공동창작

일시

2022. 3. 30(수) ~ 4. 10(일)

장소

국립극단 소극장 판

제작

(재)국립극단



02 운영위원의 글

04 줄거리

05 연출의 글

06 출연진

09 스태프 프로필

10 작품 이해돕기1

12 연습 스케치

14 작품이해돕기2

16 만드는 사람들

넓고, 깊고, 따뜻한 우주에서 커뮤니티 대소동

전강희 [창작공간: 연출] 운영위원

작년 11월 ‘창작과정공유’ 발표를 통해서 관객들을 만나기 전, 공연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해야 할지 출연진과 스태프들이 모여 의논하는 시간이 있었다. 여러 제목이 후보에 올랐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두 가지 선택지 <커뮤니티 대소동>과 <커뮤니티 소소동>만 남았고, 결정은 쉽게 나지 않았다. 고민이 계속된 이유는 사소하지만, 누구나 공감할만한 것이었다. 시각장애인 커뮤니티에서 온 출연진들의 낮은 목소리에 관객이 귀 기울여 줄 것인지? 자신들의 이야기가 대소동이라는 말을 붙일 만큼 흥미로운 것인지? 자신들의 역량으로 무대를 채울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가득했다. 궁여지책으로, 부담을 덜고자 공연은 소소동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되, 일단 제목은 대소동이라고 붙여놓고 가기로 했다.

<커뮤니티 대소동>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총 9명이다. 우리는 서로를 닉네임으로 불렀다. 트윙, 엄지, 푸름, 조재, 모리, 베썬은 시각장애인 커뮤니티에서 왔고, 몇몇은 연출가 이진엽의 이전 작업에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카이, 리리, 원뜰은 전문 배우로 활동하면서 역시 연출가와 작업한 경험이 있다.

이진엽의 작업에서 커뮤니티는 작품의 윤곽을 그리기 전에 사람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만나는 곳이다. 예전 주물을 만드는 상인들과 다년간 함께한 ‘입정동 작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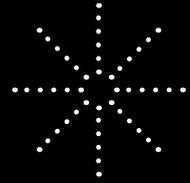
그러했고, 국내와 해외 여러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과 진행한 ‘물질’ 시리즈가 그러했다. 가장 최근 공연으로 수도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만든 <잠자리 연대기>도 마찬가지다. <커뮤니티 대소동>도 예전 작업인 <몸의 윤리>의 연장선에서 진행되고 있다. 출연진 9명은 이진엽이 만든 공연이나 워크숍 등에서 이미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인연이 생긴 사람들이다.

이번 작업도 오래 호흡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박한희, 장혜진, 밭넝쿨 안무가를 만나서 타인의 존재를 감각하는 법, 자신의 취약함을 알아가는 것, 각자가 만든 특정한 움직임의 말과 몸으로 서로 알려주는 방법을 탐색했다. 긴 워크숍 끝에 연출가는 커뮤니티 분들이 자신만의 춤을 찾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모든 과정들은 어둠 속에서 관객을 만나는 방법으로 공연 안에 녹아들어 있다. 공연은 관객이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을 인식하고, 상대를 인식하고, 모두 함께 임을 인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어떤 순간은 각자가 소우주로, 누군가를 만나는 찰나가 다른 세계에 접속하는 순간으로, 어떤 접촉도 없이 어둠 속에 홀로 있으면서도 자신이 지금 검은 하늘에 점점이 박힌 많은 다른 별들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생각에까지 다다르게 한다. 공연은 소소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거대한 엔딩 장면을 향해 나아간다.

이 공연은 ‘보는’ 공연이 아니라 ‘하는’ 공연이다. 작년 한 해를 이들과 보내면서 ‘보기’에 대해서 생각했다. 같이 공연을 보러 가서는, 본공연이 시작되기 전과 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를 통해 놓친 부분을 서로 채워나갔다. 이때 ‘보기’는 ‘말하기’가 되었다. 몸으로 해보고, 궁금한 것을 말로 풀어 정리해 나가면서, ‘보기’란 결국 오랫동안 ‘기억하기’위해 행하는 것으로써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상대에게 ‘집중하기’ 위한 ‘시도’이지 않을까. 이번 공연이 끝나고 나면 커뮤니티 분들과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아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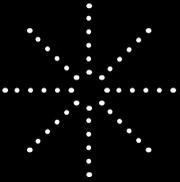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22년 봄, 서울, 당신이 도착한 이곳은 빛이 없는 세계입니다.
빛을 인지하는 누군가는 이곳을 어둠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겐 이미 어둠이 아닐 수도 있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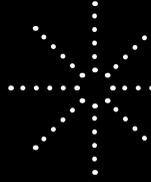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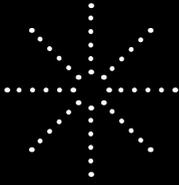
이곳은 당신이 잘 모르는 곳, 두렵지만 모름을 마주할 수 있는 곳.
저희의 안내에 따라 우리가 만나는 순간의 경이로움을 잠시 믿어
볼 수 있을까요?



“Welcome! You’re warmly invited to join us.”

In the spring of 2022, in Seoul, you’ve arrived in a world
without light. Some of those who perceive light may call
it darkness. For some, it may not be darkness anymore.

This is an unfamiliar place to you—a frightening place,
which nevertheless brings you face to face with
unknowingness. Why don’t you let us guide you, and
believe in the wonders of the moment for a while?



연출 이진엽

저는 공연을 만들면서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나누려 합니다.

작업마다 최대한 연출로서의 주장을 넣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들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하고, 부족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긴 호흡으로 이 공연을 준비하며, 제가 공연에서 무언가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공연으로 누군가의 삶을 재단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커뮤니티 대소동>은, 비시각장애인인 제가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만난 시간 동안의 기쁨과 혼란을 담고 있습니다. 관객도 이것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고자 구성했습니다.

관객 여러분께 개성 넘치고,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커뮤니티와의 만남을 기쁘게 주선했습니다. 서로 모르던 이들이, 기쁨과 혼란 속에서 새로운 우주를 알아가 보고 싶은 끌림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경림 | 트윅키 Kim Kyung Lim

누군가에게 어둠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모두와 함께 어둠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경험이 모두에게 작은 즐거움, 반짝임으로 남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기쁠 것 같습니다.



김민서 | 엄지공주 Kim Min Seo

지금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과 희망, 의욕이 다시 생긴 신나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음껏 즐겨주세요.



김시락 | 푸럼 Kim Si Rak

설렘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모두 내면의 빛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박규민 | 모리 Park Gyu Min

호흡과 발음, 안무를 익히며 공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많은 관객들에게 설렘을 주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박하늘 | 카이 Park Ha Neul

연극 <집에 살던 새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
<씩지 않는 예술> <이인환각연쇄고리>
<점과 점을 잇는 사람들> <관람모드 - 만나는 방식> 외

서로를 지나고 있는 우리. 다시 돌아오지 않을 지금. 아낌없이 만나고, 반가움을 이어가요!



이애리 | 리리 Lee Ae Ri

연극 <열렸새달> <폭면시대> <플랑크톤 댄스> 외
거리극 <놀이사용설명서> <물질2 물질하다가>

까니누나도덕대밭리리레이모리머쉬베썸썸디썸표
원뿔염지위니오징어조재주디제로징징찰리카이트
윙푸렴허탐정훈일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되어도
지금의 이름으로 반갑게 인사 나눠요. 그때 리리의
고라니 울음소리 들려드릴게요!



조재현 | 조재 Cho Jae Heon

공연 <세시에서 세시, 네시에서 네시>

보이지 않던 우리의 연결을 충분히 만끽하셨을지요?



최선애 | 베썬 Choi Sun Ae

또 다른 시작, 새로운 발견 코끼리들이
웃는다 나라의 베썬을 찾아랏!



최원석 | 원뜰 Choi Won Suk

공연 <세시에서 세시, 네시에서 네시> <몸·가면·짓>
평창올림픽 개막식

우리의 우연한 만남이 포개지는
순간을 고대합니다.

스태프 프로필

연출 공연 <세시에서 세시, 네시에서 네시> <독산 여러분> <안녕, 광명>
이진엽 | 찰리 <물질> <볼 것이 없다> <몸의 윤리> <201호 아인슈타인이 있다>
Lee Jin Yeop 거리극 <창덕궁 새로보기 후원몽> <동네 박물관 시리즈> 외
<물질2 물질하다가>

구성 1인 극단 눈과 빛과 영
장영 | 제로 연극 작 <트랜스> <좋은 괴물> <레인독스> <없는극장> <낭독의 목적>
Jang O <G의 영역>, 윤색 <더 나은 숲>
무용 드라마 터그 <한국무용?>

무대 연극 <로테르담> <더 나은 숲> <서천꽃밭이야기> <아웃오브러브>
송성원 | 쓱디 <너를 만난다> <용종절제술> <영지>
Song Sung Won <강진만 연극단 구강구산 결과보고서> <좋아하고있어>
<갈매기B> <구직> <사랑과 교육> <제르미날> 외
무용 <한국무용?> <창세무가> <비극: 내일을 위한 우화>

음악·음향 연극 <우주에서 살아남기> <다 타버리고 난 후에야> <practice alone>
김성환 | 도덕 <SHAME SHAME SHAME> <아방가르드 신파극>
Kim Sung Whan 공연 <아임더처치> <싱크로다이브> <교환신체론>
<인더스트리얼 퍼포먼스> <Formed> <멀리까지 여행하는 방>
<데카당스 시스템 아플라> <every K body>
<닐스의 모험을 위한 인덱스> 외

조연출 연극 연출 <뽕뽕뽕> <바람개비> <살아있는 검정>,
최현정 | 심표 조연출 <별의 노래> <치마> <우쭈ль 훈쭈ль 놀바흥> <얼굴을 찾아서> 외
Choi Hyun Jung 뮤지컬 무대디자인 보조 <드라쿨라>,
프로덕션디자인 보조 <셜록홈즈2 블러디게임>

커뮤니티 대소동 연습실 인터뷰: 기쁨과 혼란의 대소동을 꿈꾸면서

인터뷰 및 글 장 영

참 여 자 김경림 김민서 김성주 김시락 박규민 박하늘

이애리 이진엽 장 영 조재헌 최선에 최원석 최현정

장영 <커뮤니티 대소동> 공연은 시각장애인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공동창작 작업입니다. 우선 찰리(이진엽)님께서 창작공감에서 ‘빛이 없는 세계’에 먼저 진입한 이들과의 작업을 기획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진엽 2015년에 시각장애인분들과의 작업을 시작한 이후, 작업을 계속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계속하게 된 계기는, 사실 한 번의 작업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였어요. 다름, 그보다는 모름으로 인해, 이해의 과정에서 시행착오들이 계속되는 거죠.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주축이 되지 않는 이상 비시각장애인적인 사고가 드러나게 되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껴왔고, 그래서 창작공감에서는 이분들을 주인공으로 아예 다른 접근을 해보자고 결정하게 되었어요.

장영 ‘빛이 없는 세계’나 ‘우주적 공간’이라는 설정 등 암전된 극장 공간에 판타지적 상상력을 더하고자 하셨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진엽 어떻게 보면 이 공연은 사실 저의 다큐멘터리에서 시작된 것이기도 해요. 제가 커뮤니티 분들을 만났던 과정에서 출발해서, 저의 다큐멘터리가 공동창작을 통해 우리의 다큐멘터리로 이행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연 속 커뮤니티와의 만남이, 저의 개인적 다큐멘터리였던 현실 속 만남이 그랬듯 기쁨과 혼란이 같이 오는 형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공동창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주’라는 세계가 탄생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지구의 언어를 쓰지만, 지구의 언어

를 변형해서 오히려 정보 전달을 ‘혼란’스럽게 하고 방해하는 요소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직관적으로 우주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 우리는 어떤 다른 가능성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약간의 기대도 하고 가장아요. 그러한 상상력과 설렘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우주처럼 모르는 공간을 만나기도 하고, 또 ‘당신’을 우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서로를 우주라는 미지의 세계처럼 느끼는 시간 같았어요.

규민 저는 극장에서 움직이면서 이 공간이 흔들리는 우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약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우리가 모두 똑같이 빛이 없는 세계에 있으니까요. 활력이 넘치고, 감각이 살아나고, 나만의 방향으로 그 길을 가면서 분명한 기준점도 생기고요. 헤매면서도 헤매고 있지 않은 그런 느낌, 계속 뭔가를 찾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니다.

민서 저는 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영화 <큐브>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바닥의 질감을 따라서 계속 걷잖아요, 깜깜한 곳에서. 예전에 눈 잘 보였을 때 봤던 영화 중에 <큐브>라는 영화 생각이 많이 났었고요. 공연할 때는, 계속 여기는 우주다-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대기권 밖, 무한한 공간 속 어떤 커다란 물방울 속에 들어가서 동동 떠다니는 것처럼 느꼈고, 그런 느낌 안에서 말하고 움직이게 됐어요.

경림 저는 우주라는 설정 자체가 세계관을 확장시킨다고 생각했고, 그 속에서 관객과 배우들 모두의 시간이 겹쳐진다는 것을 크게 감각하게 됐어요.

재현 여태까지 저에게 빛이 없는 세상은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세계였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오히려 바깥으로 향하는 감각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이 활기차지고, 제 마음이 오픈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니다.

※ 인터뷰 전문은 QR코드 또는 국립극단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5분.
이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오후 5시 55분에 대한 글

어느덧 오후 5시 55분이 되었네요.

지금 당신의 몸과 마음은 어떤가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무엇을 하든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어 뼈리빠라리까한

에너지에 집중하고 음~ 소리를 내며

빛이 없는 세계에서 기억을 떠올려주세요.

계속 음~ 소리를 내며

우리의 연결을 느껴보세요.

좋습니다.

아직 연결되어 있네요.



QR코드를 통해
우리가 남긴 메시지를
들어주세요.

만드는 사람들

출연

김경림 김민서 김시락 박규민 박하늘
이애리 조재현 최선애 최원석

스태프

연 출 이진엽

공동창작

김가는 김경림 김민서 김시락
박규민 박하늘 이애리 이진엽
장 영 조재현 최선애 최원석

구성 장 영

무대 송성원

음악·음향 김성환

조연출 최현정

움직임트레이너 밝녕쿨

보컬트레이너 임소미

무대감독 이묵수

무대제작감독 홍영진

음향감독 음창인

음향오피 정하윤

RF 엔지니어·오퍼레이터 오세나

무대진행 이수연

무대제작 세원무대미술(대표 신한영)

음향팀 정하윤 오세나

홍보·마케팅 총괄 박보영

홍보 이정현 김태은

마케팅 이승이

온라인마케팅 오지수 조영채

청년인턴 김한경 정진영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9기

박예지 이예본 임도희 최나윤 황수빈 황지연

연습사진 김신중

연습사진 헤어 까미수피아(대표 정은이)

기록영상 언두픽처스(대표 조윤수)

메인디자인 페이퍼프레스(대표 박신우)

응용디자인 스튜디오 붐빔(대표 김은총)

옥외광고 영기획(대표 서성원)

홍보물 인쇄 인타임(대표 김종민)

티켓 김보전

매표 안내원 김신혜 손주형 양혜선 이승희

하우스·접근성매니저 김수현

하우스안내원

임지은 송 솔 김지수 고계령 박소담 손유희

문채림 연희원 조세찬 최민아 한세린 고혜진

김연정 김지이 윤예진 이지은 박주은 황지수

공연진행요원

김병국 김종현 김지인 김혜린 박채은

서채영 이금서 이하늘 황준영

프로그램북 디자인 전안수

프로그램북 인쇄 미림아트(대표 신동복)

[창작공감: 연출] 운영위원 전강희

작품개발 책임총괄 지민주

작품개발 프로듀서 조유림

기획·제작 총괄 김옥경

프로듀서 김정연 김훈일

제작진행 김성주

제작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스마트폰의 인터넷/카메라
앱 등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에 참여하세요.

본 공연
창작공감:연출

소극장판-타지

구성·연출. 강보름

무대 송성원
조명 박유진
음악 오로민경
사운드 목소
윤치임 고권금
영상 임리원
의상·소품 이윤진

출연
고애리 김지우
안정우 이청수

한국수어통역 장진석
신선아
한국어자막 음성해설 작 김현지
강보름

2022. 4. 20.-5. 1.

국립극단 소극장 판



국립극단

푸른하늘 국립극단 1644-2003

본 공연
창작공감:작가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작.배해률

연출.이래은

드라마투르기 이오진
연기자문 장채키
음악감독 손지민
무대-소품 장호
조명 신동선
의상 김미나
음향 임서진
분장 장경숙

출연
경지은 김광덕
김수량 김시영
백소정 이미라

2022. 4. 20. - 5. 1.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국립극단

푸른하늘

국립극단 1644-2003

연극이 보고 싶을 땐!

국립극단 회원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최대 할인율로 예약하는 즐거움까지

유료회원

* 가입기간 1년

친한친구 연회비 5만원

- 제작공연 40% 할인(전등금, 공연별 4매한)
- 제작 공연 우선 예약
- 온라인 극장 1개 작품
1회 무료 관람권(쿠폰) 제공

연극인회원

* 가입기간 3년

가입대상 연극계 종사자

- 제작공연 50%할인(전등금, 본인 1매 한)

무료회원

- 국립극단 홈페이지 예약 시 수수료 면제
- 공연 프로그램 및 포스터 무료 다운로드

문의 및 가입

국립극단 홈페이지

www.ntck.or.kr

고객센터

1644-2003





스카랭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만선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파우스트 엔딩



X의 비극



팬
백혜설



국립극단
온라인 극장

on.ntck.or.kr

남수현
소년이그랬다



김우진, 윤동원 배우 편
소년이그랬다